



제2738호 2024년 11월 3일(나해)

(녹) 연중 제31주일

발행인 김선태 주교 | 주소 55036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편집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대표전화 (063)230-1004 | 팩스 (063)230-1175

홈페이지 <http://jcatholic.or.kr> | E-mail [catholic114@hanmail.net](mailto:catholic114@hanmail.net)

교구장 사목교서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서신동성당(2지구)



① 한병헌 신부(주임) ② 진일종 신부(보좌) ③ 하 막달레나(원), 양 엘리사벳(오른) 수녀(전교가르멜수녀회) ④한병훈(사목회장) ⑤ 강민호(사무장) 외 사목회원

**입당송** \_ 시편 38(37),22-23 참조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1독서** \_ 신명 6,2-6

**화답송** \_ 시편 18(17),2-3 7,3 나 나 -4.47과 51(◎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별,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  
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

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  
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2독서** \_ 히브 7,23-28

**복음환호송** \_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  
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_ 마르 12,28 7 나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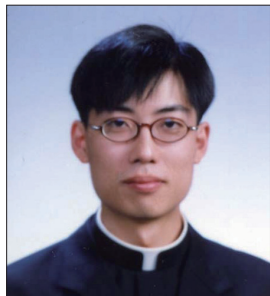
**영성체송** \_ 시편 16(15),11 참조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  
쁨에 넘치리이다.

주보 <쇼정이>는 전주교구의 역사이고 소식이며 선교입니다. 성당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 아모레 볼레짜(Amore Volezza)



염태성 사도 요한 신부  
(복흥성당)

십계명 중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끝나는 계명이 6개다 보니, 계명의 60%가 금지문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신 첫째 가는 계명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하시는 열 번째 계명을 똑같은 권위로 본다는 것은 오히려 십계명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불과합니다. 계명 앞에 붙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는 서수는 단지 구별 목적으로 붙여둔 번호였다고 보다, 각 계명들이 지닌 권위를 반영하고자 하는, 곧 지켜야 할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신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보다 앞서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미사 참례에 대한 의식 자체가 코로나 시국 이전과는 같지 않아진 요즘, 효도는 그리스도교 가치를 넘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용되는 가치라는 이유를 들어,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논리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느님께서 그저 당신 몫을 먼저 챙기려 하시는 웅졸한 마음에 인류 보편적 가치라 할 수 있는 효도보다도,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 사회에선 전체 인구 중 가톨릭 아니면 개신교 신자 정도에게만 적용될 뿐인 ‘주일 지키기’를 더 중시 여기고 싶어 하신 까닭에 굳이 지금과 같은 순서를 매겨놓으신 건지부터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가는 계명, 곧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말씀이 정말 주일미사 참례 의무에 국한된 규정이라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이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안식일이 인간의 영역이라기 보단 하느님 쪽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로, 그저 안식일만 제대로 잘 지키면 그게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겠거니 하는 식이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리 말씀하신 적이 계셨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정해주신 안식일 전체를 거룩하게 지내라 말씀하셨지, 그날의 몇 시간을 할애해서 주일미사 의무나 잘 지키면 끝이라 하신 적 없으셨습니다.

‘거룩함’이 배제된 의무는 외적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한들, 하느님과 무관한 인간의 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는 바리사이들이 성경구절을 달달 외우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 성구갑을 만들어 이마에 붙이고 다니기까지 했던 것도 그렇고, 아주 하찮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입의 1/10은 반드시 십일조를 바치는 열성을 보였던 것도 그러했듯이,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국 율법의 주관자 되시는 분께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마르 7,8)라고 평가받았던 것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인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질책을 들을 바에야, 실제로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는 일일 테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줄 안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시간의 권리, 곧 자신의 삶의 권리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 시작에서부터 스스로 태어날 환경을 결정할 수 없었던 존재인 만큼, 살아가고 있는 시간 역시도 단지 주어지고 허락된 기회일 뿐, 그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것이었던 적 없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행위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옛새동안 힘써 일했던 만큼, 먹고살기 위해서, 그만큼 또 바빴다는 이유로 잠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하느님과의 관계, 달리 말하자면 주어진 기회로서의 삶을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 하루 온종일’을 지내야 될 필요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닌지...?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시작해 가장 멀리 있는 이웃에 이르기까지,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시작으로 어느 누구 하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치려 들지도 말 것이며, 부부에 대한 신의를 지킬 줄 알고, 사리사욕을 채우려 이웃을 이용하려 들거나 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일에 동참하려 들지도 않으려 하는, 혹시라도 이에 부족했던 점이 떠오른다면 일 주일에 하루, 주님의 날 하루만큼은 이를 보상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곧 ‘거룩함을 거룩하게,’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할 몫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시간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물론 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될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아주 괜찮은 행동 양식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돈보스코 성인이 창안한 Amore Volezza 역시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그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성인의 모토를 반영한 행동양식이라 합니다.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번역, 해석의 다른 이름

작가 한강의 노벨상 소식으로 대한민국이 들쭉이고 있습니다. 문학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이에게도 작가의 이름이 익숙하게 된 것은 부커 상 인터내셔널 부분(=맨 부커 상)을 수상하면서부터가 아닐까 합니다. 수상작이었던 *The Vegetarian*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본이었습니다. 때문에 작품의 원저자인 한강과 더불어 그 번역자인 데보라 스미스가 맨 부커 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 문화계 전방에서 K-Culture(한국문화)의 열풍이 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이런 흐름의 일환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 흐름에 박차를 가했던 상징적인 사건이 영화 「기생충」의 흥행이었습니다. 오스카(아카데미) 상 수상 전 이미 골든 글로브 감독상을 받았던 봉준호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1인치 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라는 일침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마침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특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성공),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 따른 격리생활 등은 실제로 언어의 장벽 너머로 한국의 문화가 널리 알려지게 된 바탕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도 이러한 언어의 장벽과 번역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 성경의 자의적(字意的) 의미는 성경이 최초로 기록된 언어와 그 바탕이 되는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원초적 출발점이 하느님이시라는 점에서 성경 번역은 해석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곧, 하느님은 어느 특정 시대와 특정한 지역에 묶여버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시대, 모든 이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런 의미에서 최초의 성경이 우리를 ‘향해’ 쓰였던 기록이 아니지만 그 글에 담긴 것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 위해 필요한 작업, 구체적인 시대와 장소에서 살아가는 독자와 청중들이 그 의미를 자기 시대의 언



이정석 라파엘 신부  
(전주가톨릭신학원)

어로 이해하도록 필요한 작업이 번역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인간 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다양한 번역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는 최초의 성경이 기록될 때에만 감도 하신 것이 아니라 번역자의 노력에도 같은 성령의 활동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번역은 곧 해석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 통번역의 실례를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느헤미야 8장의 성대한 초막절 축제 기사입니다: “그들(=레위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 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 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느헤 8,8)

또, 집회서의 번역자는 ‘잠도 제대로 못자며 온갖 지식을 다 기울여 번역했지만, 어떤 표현들은 도저히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옮기지 못하는 한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집회서 머리말 참조).

성경의 원저자, 다양한 언어의 번역자들 만이 성령의 영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퍼즐은 그 말씀과 글을 듣고, 읽는 청중들과 독자들의 몫입니다. 특히, 공동체의 전례 속에서 거행되는 말씀의 선포와 해설은 ‘성령의 성전’(에페 2,20-22)인 교회가 하느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체험입니다. 교회는 성체 성사와 더불어 하느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마태 4,4; 루카 4,4 참조).

성령은 성서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들(성서)을 저술할 때 성서 저자들에게만 단 한 번 역사하신 것이 아니다. 성령은 성서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역사하신다. 오직 성령의 현존만이 단순한 문자를 영으로 변화시키는 보증이 되시며 오직 그분만이 성서 본문에 영원한 젊음을 부여하신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읽는 이를 부추기실 때에만 성서는 결실을 풍부히 맺는 말씀이 된다

- 엔조 비앙키,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왜관: 분도출판사, 2001 [Torino 21991]) 61.



## 수능 수험생 부모 피정에 초대합니다!



교구 가정사목국(국장=이원재 신부)은 11월 14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평화의 전당에서 '수능 수험생 부모님을 위한 피정'을 실시한다.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를 위해 수험생 가족들이 수험생들과 한마음이 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은총을 청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참가 대상은 수험생 부모와 가족으로 참가비는 없으며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준비물은 미사 준비, 성경, 묵주, 개인 텀블러이다.

수능 당일(14일) 평화의 전당 피정센터 1층에서 접수를 시작으로 ▶수험생과 부모님을 위한 미사 ▶수험생을 위한 묵주기도 ▶점심 ▶강의 ▶축복 인사 연습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마감은 11월 7일(목)까지이다.

수능 수험생 부모님을 위한 1일 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문의 : 063)285-1031(교구 가정사목국)

| 김도숙(교구 기자단) |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침과 제주 여행  
12.1~3 / 12.6~8 / 12.14~16 / 1.11~13(한라산)  
연말연시(한라산산행) 12.29~1.1  
02-773-1455 / 064-796-4182

### 제주 면형의 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생태/성지순례  
연말연시(한라산산행) 12.30~1.2  
성지순례: 12.1~4 / 3.1~4, 3.9~12, 4.12~15  
02-773-1463 / 064-756-6009

### 전일관광 메주고리에 성지순례

그리스,알바니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  
보스니아,이탈리아(매일 미사 드립니다.)  
2025년 2월 16일~27일(12일간)  
전일관광 조선 안토니오 063-288-6666

### 강성호 피부과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피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

### 아름다운 김현숙안과

쌍꺼풀수술·상안검성형술·하안검성형술  
성형안과 정희원  
원장 김현숙 레지나  
신시가지 국민은행 5층 063)225-7717

### 성바오로복지병원

양·한방 협진, 수술 후 회복기, 암 환자  
만성질환, 기타 요양이 필요한 질환(면회 가능)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운영  
063)249-3300~3302

### 황선주 손해사정사무소

교통사고 보상 상담  
소장/황선주(프란치스코)  
232-4985, 010-3659-4985  
기린로 한솔빌딩 5층

### 세무사 최준철 사무소

세무사 최준철(베네딕도)  
덕진구 송천동 1가(송천우체국 옆)  
255-6200, 010-9453-3547, F255-6202  
양도세·상속증여세·기장대리·세무조정 상담

### 온누리 바른척추&통증관리

목·어깨·팔·허리·다리  
척추 골반 통증 및 체형 관리  
최민준 시몬 010-3684-5544  
효자동 신기독병원 맞은편

### 하늘고속관광 베트남 5일

베트남(호치민,붕타우) 5일  
2025년 1월 9일(목)~13일(월)  
최석재 스테파노  
063-286-9595 / 010-3044-5009

###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6 멕시코(파달루페,칸쿤 10일) 715만원  
3.26 대한항공 이베리 일주 9일 419만원  
2.24, 3.3 터키,그리스 11일 초특가 385만원  
유계구 요한 02)778-8565

### 서해젓집

국내산 새우젓 및 각종 고급 젓갈류 도·소매  
삼천동 농협 공판장 내 위치  
염점례 리더야  
063)227-8111 / 010-3675-0091

### 군산한우 지니한우

한우 무한리필 / 특수부위  
연중무휴 / 기업 단체 회식환영  
나운2길38 2층 / 송진희(제노비오)  
063.468.2897 / 010.4434.2897

### 장문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5대암 검진기관  
위.대장.항문병 중점, 위.대장 내시경 센터  
내과: 나용호 / 외과: 최성양(루카)  
834-6000 익산 영동동 육교 옆

### 문실버요양병원(구, 문병원)

가톨릭 신자 내원 시 우대 혜택  
원장 : 문지식 레나도, 기순중 안젤라  
위치 : 경원동 KT 사옥 옆  
063)282-8833~6/284-2918



### 제1차 어린이 전례캠프

교구 청소년교육국(국장=소명섭 신부)은 10월 19일(토)부터 20일(주일)까지 임실군청소년수련원에서 ‘제1차 어린이 전례캠프’를 실시했다. 첫영성체를 한 초등부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례캠프에는 40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대림-성탄시기, 연중시기, 사순-부활시기에 맞는 전례 체험과 바름 활동(조별활동)을 통해 전례력에 대한 이해 증진, 주일학교 전례봉사와 어린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소명섭 신부는 “예수님과 함께한 1박 2일 동안 이곳에서 보고 배운 것을 본당에 가서 열심히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도숙(교구 기자단) |



### 이주민 방문 의료지원

교구 이주사목국(국장=김종성 신부)은 10월 27일(주일) 성요셉노동자의집에서 (사)광주이주민건강센터 협력사업으로 ‘이주민 방문 의료지원(이하 방문 진료)’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진료는 내과·산부인과·치과 전문의, 간호사·통역 등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이주민들을 위한 보건위생교육, 혈압·혈당 체크, 건강키트와 영양제 배분도 진행되었다.

교구 이주사목국은 방문 의료지원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실천을 위해 교구민들의 참여와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 063-230-1109 교구 이주사목국

| 홍보국 취재, 사진 : 교구 이주사목국 제공 |



### Photo 소식



▲ 장계성당 견진성사  
10월 13일(주일) <사진: 본당 제공>



▲ 금암성당 견진성사  
10월 20일(주일) <사진: 본당 제공>

- **새 사제와 함께 도보성지순례**  
11월 4일(월) 오전 8시
- **제20회 사회복지후원회원 및 자원봉사자의 날**  
11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 평화의 전당
- **해성학원 이사회**  
11월 5일(화) 오후 2시 30분 교구청

- **재무평의회 및 사제평의회**  
11월 6일(수) 오후 2시 30분, 3시 30분
- **노동사목소위원회 정기토론회**  
11월 7일(목) 오후 2시 CBCK
- **사형제도폐지 정기회의 및 콘서트**  
11월 7일(목) 오후 5시, 7시 30분 CBCK
- **사목방문 및 견진**  
11월 10일(주일) 오전 10시 부송동

## 이번 주 교구 행사

- **11월 4일(월)**
  - 본당직원 추계 연수(~6일, 강화도)
  - 교정사목 군산후원회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축동)
  - 가정사목국 후원회 미사  
(오전 11시 자비의 성전)
  - 15차 새만금 생태계복원 기원 월요미사  
(오후 3시 해창 갯벌)
- **11월 5일(화)**
  - 사회복지 담당사제 모임(오후 2시 평화의 전당)
  - 수도자를 위한 고해성사  
(오후 2시 유항검관)
  - 전주가톨릭신학원 특강 7
- **11월 7일(목)**
  - 자원봉사자학교(오후 1시 30분 교구청)
  - 생태환경위원회 월례회의  
(오후 2시 교구청)
- **11월 8일(금)**
  - 장기근속 교리교사 성지순례  
(~11일, 홍콩 마카오)

- 30기 성요셉아버지학교  
(~10일, 평화의 전당)
- **11월 9일(토)**
  - 장애인사도직협의회 월례회의  
(오전 10시 유항검관)
  - 성서형제회 월례미사(오전 11시 교구청)
- **11월 10일(주일)**
  - 예비신학생 월모임 및 체육대회  
(오후 1시 30분 해성중고)

## 교구 내 알릴

- **전주교구 말씀.치유의 기도회**  
일시 : 매주 금 저녁 7시~11시 30분  
장소 : 치명자산성지입구 자비의성전  
주최·주관 : 전주교구 성령새신봉사회
- **"가정"을 위한 천호 하루 피정**  
11월 16일(토) 오전 10시  
오후 3시 파견미사  
주제 : 마침피정  
<사별 가족의 과업과 도움 주기>  
지도 : 김기곤 프란치스코 신부  
피정비 : 1인 2만원(선착순 80명)  
장소 : 피정의 집(263-1004)

## 어떻게 천주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가톨릭순교현양원

월간 소식지

매달 말일 발행합니다

순교현양원 소식지



- **가난한이들의작은자매회 사랑의 손 모임**  
11월 10일(주일) 성요셉동산양로원  
대상 : 15세~35세 그리스도인으로  
문의 : 010-3055-1441/010-8748-1442
- **전주지구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 모집**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따라 교황청이 인준한 회칙을 준수하며 사랑의 완덕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재속회로써 견진을 받은 18세 이상의 교우를 초대합니다.  
문의 : 010-2464-7288
- **성모양로원 입소 어르신 모집**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문의 : 063)453-8400  
홈페이지 : www.smo8400.net
- **2024년 성서주간 말씀 잔치**  
신청기간 : 11월 3일(주일)~24일(주일)  
일정 : 11월 28일(목) 오전 10시  
신청비 : 1인 1만5천원/장소 : 평화의 전당  
문의 : 조 마리스몬 수녀(010-2184-8879)  
신청 : 사목국(230-1059)

## 교구 밖 알릴

- **속리산과 함께 하는 2박3일 침묵피정**  
일시 : 11.15~17/2025년 1.17~18  
장소 : 보은 영성의집(예수수도회)  
문의 : 010-9608-0208(1:1개인지도)

## 전주교 전주교구청 이주사목국 직원 모집

1. 자격조건
  -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전주교 신자, 회계 업무 및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주일 근무 가능자, 운전면허 2종 보통 소지자(1종 소지자 우대)
  - 외국어(생활영어 수준) 가능자 우대
2.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최종학력증명서  
(http://www.jcatholic.or.kr 에 게시된 양식 사용)
3. 제출기한 : 2024. 11. 18.(월) 17:00까지
4. 제출방법 : 이메일: jjmst@j1004.net  
우편/인편: 전주교 전주교구청 사무처 ☎ 230-1068
5.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직원모집

1. 자격조건
  - 법인의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도내 순환보직 가능자
2. 분야 : 사회복지사(법인행정 업무) 정규직 1명
3.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부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  
(http://www.caritasjeonju.or.kr 또는 http://www.jcatholic.or.kr에 게시된 양식사용)
4. 제출기한 : 2024.11.07.(목) 18:00까지
5. 제출방법 : 이메일 sarangdari@hanmail.net  
우편/인편 가능 :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 230-1074
6.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 개별 연락



# 2025 전주가톨릭신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2티모 4,2)

전주가톨릭신학원은 복음 선포를 본질로 하는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성전(聖經)과 성경(聖經)에 담긴 '신앙의 유산'(depositum fidei)을 성실히 공부하여 자신의 믿음을 깊게 하고 믿는 바를 배우며, 배운 바를 전하는 능력을 지닌 교리교사와 말씀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믿는 바를 학문적이며 성서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 1. 각 학과별 모집인원

| 학과    | 수업 일시               | 모집인원 | 수업장소   |
|-------|---------------------|------|--------|
| 교리교육과 | 월 10:00-16:00       | 50명  | 신학원    |
| 신앙연수과 | 월 19:00-21:30       | 30명  | 신학원    |
| 성서교육과 | 금 10:00-16:00       | 50명  | 신학원    |
| 성서연수과 | 익산 분원 목 10:00-12:30 | 70명  | 익산 부송동 |
|       | 전주 주간 목 10:00-12:30 | 150명 | 신학원    |
|       | 전주 야간 목 19:00-21:00 | 50명  | 신학원    |

2. 원서교부 기간 : 2024년 11월 1일(금)~11월 30일(토)

3. 원서 접수 마감 : 12월 2일(월) 17:00까지 / 4. 신입생 면접 : 2025년 1월 18일(토) 14:00

5. 입학미사 : 2025년 2월 22일(토) 14:00 유향검관 4층 대강당(주교님 주례)

6. 문의 : 063-230-1194 행정실 / 홈페이지 : <http://www.cate-ins.com>

